

제니스, 수상 경력에 빛나는 호주 셰프 조시 닐란드를 새로운 브랜드 파트너로 맞이하다

평단의 찬사를 받는 셰프이자 레스토랑 경영자이며 작가인 조시 닐란드(Josh Niland)는 혁신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미식을 선보이는 인물로, 수많은 수상 경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단독으로 생선 요리, 운송, 숙성, 보관 방법에 변화를 불러오며 자신만의 별에 도달했습니다.

요리 분야의 진정한 선구자인 그는 자신만의 시그니처와도 같은 손질 기법인 “코부터 꼬리까지(nose-to-fin)” 방식을 활용해 전 세계에 생선 요리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미래를 꿈꾸는 제니스 HORIZ-ON 이니셔티브에 발맞춘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혁신적인 접근법을 바탕으로 생선의 모든 부위를 사용해 근사한 시그니처 요리를 선보입니다. 그는 이처럼 기발한 손질법을 통해 해산물의 대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조시 닐란드는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요리와 위치메이킹 분야는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제니스 브랜드 파트너에 합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는 늘 해산물에 접근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제니스의 활동,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접근법을 채택하는 방식에서 혁신과 대담함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니스와 함께 즐거운 순간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니스 CEO 줄리안 토나레(Julien Tornare)는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조시 닐란드를 제니스의 호주 브랜드 파트너로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는 자신의 열정과 신념을 따라 별을 향해 도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완벽히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탁월한 셰프인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요리 분야를 이끌며 해산물 요리의 윤리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제니스가 HORIZ-ON 이니셔티브를 통해 탐구하고 육성하고자 노력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창의성이라는 가치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시드니의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과 요리사 헤스턴 블루먼슬(Heston Blumenthal)의 미술랭 3 스타 레스토랑인 영국의 더 팻 덕(The Fat Duck)에서 근무한 조시는 아내 줄리와 함께 2016 년 그의 레스토랑을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과감히 호주 패딩턴에 소규모 생선 전문 레스토랑을 오픈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세인트 피터(Saint Peter) 레스토랑은 빠르게 명성을 쌓았으며, 생선의 모든 부위를 사용한 요리로 여러 차례 상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상을 받고 있는 세인트 피터는 현재 호주 최고의 레스토랑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곳의 컨셉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되는 호주 해산물을 선보이는 것입니다.

생선의 모든 부위를 사용한 요리를 선보이는 조시는 2018 년, 신선한 생선 및 해산물을 위한 유일한 리테일 아울렛인 피시 부처리(Fish Butchery)를 설립했습니다. 이곳은 온도를 통제해 얼음을 사용하지 않는 구역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낚싯대로 잡은, 지속 가능한 어종을 건조 및 가공하고 주문에 따라 손질합니다. 조시는 2019 년 로즈 베이 해변가 근처에서 레스토랑급 수준의 패스트푸드를 선사하는 테이크아웃 컨셉의 차콜 피시(Charcoal Fish)를 오픈했으며 2022년에는 워털루에 피시 부처리(Fish



Butchery)를 오픈했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는 시드니 북부 해안에 두 번째 레스토랑인 피터맨(Petermen)을 오픈하며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호주의 재배자, 생산업자, 공급업체를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조시 닐란드는 레스토랑과 관련된 활동 외에도 지금까지 3 권의 책을 펴내며 자신의, 경험, 기술, 레시피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마스터클래스와 시연을 통해 큰 꿈을 품은 차세대 셰프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마스터셰프 호주(MasterChef Australia) 요리 경연 리얼리티 TV 쇼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제니스는 앞으로 요리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조시 닐란드와 새로운 모험을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제니스: 꿈을 향한 도전.

제니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추구하며 이를 이뤄내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1865년 설립 이후 제니스는 최초의 수직 통합형 스위스 시계 매뉴팩처로 자리 잡았으며, 제니스 시계는 영국해협 횡단 비행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루이 블레리오(Louis Blériot)부터 성층권 자유낙하 기록을 세운 펠릭스 바움가트너(Felix Baumgartner)에 이르기까지 큰 꿈을 꾸며 불가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특별한 인물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제니스는 또한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드림허스(DREAMHERS) 플랫폼을 마련해 선구적인 여성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들에게 주목합니다.

혁신의 별을 따라 전진하는 제니스는 모든 시계에 인하우스 방식으로 자체 개발 및 제작한 무브먼트를 사용합니다. 제니스는 1969년 세계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인 엘 프리메로를 출시했으며, 계속해서 0.1 초까지 측정 가능한 Chronomaster 컬렉션과 0.01 초의 정밀성을 갖춘 DEFY 컬렉션을 통해 정밀한 고진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간 측정 역량을 드러냈습니다. 혁신은 곧 책임을 의미합니다. 제니스 HORIZ-ON 이니셔티브는 포용성과 다양성, 지속 가능성, 직원의 복리후생이라는 세 가지 헌신을 약속합니다. 제니스는 1865년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차원을 향한 열정적인 도전과 함께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만의 꿈을 향해 손을 뻗을 시간입니다.